



## 수업 목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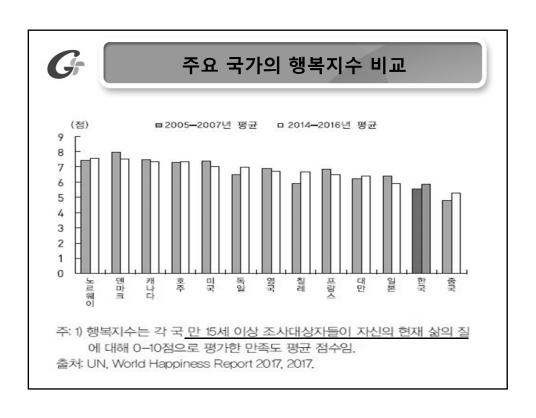
- ❖ 경제적, 사회적 불평등이 초래하는 사회적 갈등과 건강 불평등 문제 등을 알아본다.
- ❖ 그러한 부의 불평등과 분배에 관련된 윤리적 관점을 알아본다.
- ❖ 부의 축적과 분배 메커니즘, 그것과 관련된 소비와 나눔의 행태에 관해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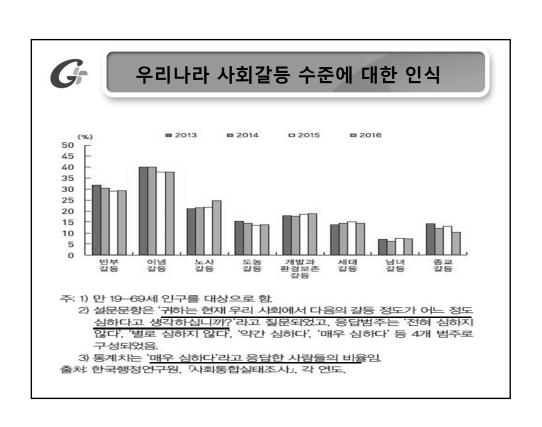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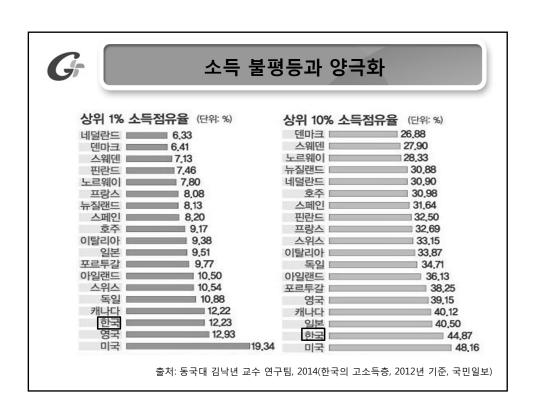
# 수업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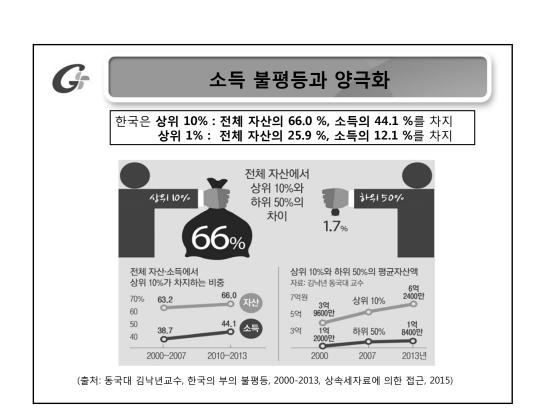
- ❖ 생각 열기
  - 한국사회의 양극화
- ❖ 조별 발표
- ❖ 더 생각해볼 것들
  -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
  - 평등해야 건강하다
  - 부의 분배와 관련된 논의들













###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

❖ 불평등을 말해주는 현상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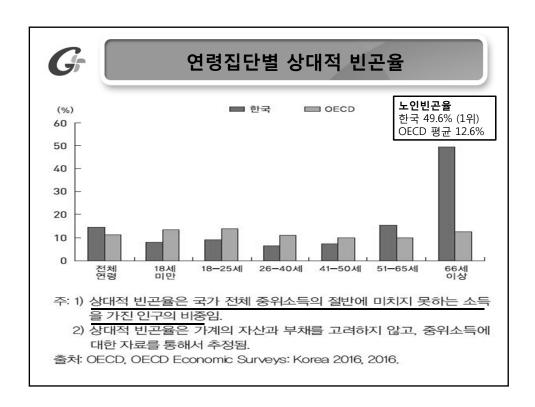
펜의 난쟁이 행렬 『소득분배』 Income Distribution(1971)

- 관련영상: http://blog.naver.com/mithra2013/90171776357



#### 가난의 대물림에 대한 인식 계층이동 가능성 "높다" 60 출처: 통계청 <2017 사회조사, 단위: %, 48.2 출처: 통계청 <2017 사회조사, 단위: %> 50 41.4 39.6 40 30.0 29.5 30 36.4 29.8 29.0 20 22.7 21.5 10 0 2009년 2011년 2015년 2013년 2017년 ----본인세대 +----자식세대

 소스로 생각하는 계층의식이 '상층'일수록 "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"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컸음. →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인식 증가





###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

#### ❖ 소득불평등의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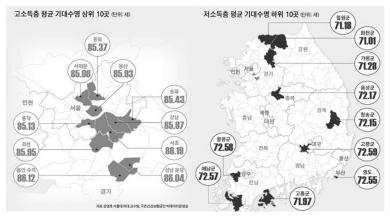
- 소득불평등은 경제적 불안정성을 높여 성장을 방해한다.
- 소득불평등이 심해지면 사람들의 행복에 악영향을 미친다.
-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건강 불평등으로 심화된다.
-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는 건강과 관련된 자원이나 위험 요인의 누진적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.
- 서울의대 강영호 교수팀(2009~2014년 건강보험 가입자와 사망자 관련조사, 2015)
  - ① 기대수명: 서초구(86.2세) > 강원 화천군(71세)
  - ② 수명: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(남성:+19.8년, 여성:+10.7년) > 의료급여수급자 (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)
- → 결론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면 중산층이 소멸되고, 경기가 악화 되며 자본주의 체제의 불안으로 연결됨.



### 소득 불평등과 평균 기대수명

#### 전국 소득수준에 따른 기대수명(고소득층 vs 저소득층)

(2009~2014년 국민건강보험자료 2억 9,400만건 & 146만명의 사망신고자료 분석)



출처: 한국일보, 2015, 기대수명 불평등(강영호 교수팀 연구 자료 편집)



## 조별 발표





### 생각 퍼즐 맞추기

- ❖ 조별 발표 내용에 관해 좀 더 이야기 나눠보자.
- ❖ 소득 재분배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 하고 토론해보자.
- ❖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자신의 생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자.

